

[일본, 2013년 3월] [농식품]

1. 일본지역, 현장 이슈

▶ TPP로 약 3조엔의 생산감소

TPP로 관세철폐 시에는 농산물의 생산액이 약 3조엔 감소할것으로 일본정부가 시산자료를 발표하였음

▶ 커트야채의 시장규모 1900억엔

일본의 농축산진흥기구의 조사발표에 의하면 커트야채 원료의 시장규모가 약600억엔, 커트야채 제조의 시장규모가 약1,330억엔, 커트야채의 판매 시장규모는 약1,900억으로 추산 발표하였음.

본조사의 커트야채의 정의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커트한 야채 등 간단한 전처리를 한 것으로 2분의1 커트나 4분의1로 커트한 것은 제외한 수치임

▶ 1월의 청과수입 신선야채 17% 감소

1월의 청과수입실적은 신선야채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양파입하가 대폭감소되었기때문으로 분석됨

▶ 일본 소비세 환원세일 금지 방침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12일, 소비세증세 시 대형슈퍼 등에 의한 ‘소비세 환원 세일’을 금지한다고 결정함. 상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슈퍼측이 증세분 가격인상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상품 가격표시에서는 가격표 변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 가격과 세액을 별도 표시하는 ‘세별’을 일시적으로 인정한다. 소비세 환원 세일 금지에 대해 소매유통업계에 서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음

소비세액은 2014년 4월에 지금의 5%에서 8%로 인상되며 2015년 10월에는 10%로 인상될 예정임

▶ 한국산 식품위반사례 및 검사강화 해제

한국산 창란젓갈이 식품위생법에 위반(2/19), 솔빈산 기준치 설정되어 있지 않아 검출되면 위반, 솔빈산0.069g검출, 중국산사용

한국산 수정과 56kg이 식품위생법역에 위반(2/25), 폴리솔베이트80의 사용기준은 0.020g이하이나 금번 0.042g/kg으로 적발

한국산 젓갈류(오징어, 멍게젓갈등) 9kg이 식품위생법에 위반(2/27), 폴리솔베이트80의 사용기준을 초과.(0.46g, 0.51g, 0.65g검출), 폐기처분

한국산 파프리카 모니터링검사 강화가 해제되어 3/7일자로 모니터링검사 30%가 통상검사상태인 모니터링검사 5%로 환원됨

2. 농식품 수입동향 및 전망

□ ‘13. 1월말까지의 일본 전체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682,790백만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 수입1위 미국(18.9%), 2위 중국(15.3%), 3위 캐나다(6.2%)

- ‘13. 1월말까지의 한국산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14,413백만엔으로(전체수입비중 2.2%) 전년동기 (12,638백만엔) 대비 14.0% 증가로 추정됨

□ 야채

- 2013년 1월의 야채 수입량은 전년동월비 97%인 236,149톤으로 유형별로 보면 「신선 야채」는 동 83%인 66,220톤, 「냉동 야채」는 동 99%인 82,619톤, 「염장 등 야채」는 동 82%인 10,607톤, 「건조 야채」는 동 92%인 4,147톤, 「초 조제야채」는 동 85%인 3,220톤, 「토마토 가공품」은 동 136%인 27,848톤, 「기타 조제야채」는 동 106%인 38,282톤, 「기타」는 동 109%인 3,206톤으로 나타남. 토마토 가공품, 기타 조정 야채 및 기타는 전년을 상회하였으나 신선야채, 냉동야채, 염장 등 야채, 건조야채 및 초 조정야채가 전년을 하회하여 수입량 전체에서는 전년을 하회하였음

□ 신선야채

- 수입량이 증가한 주 품목은 토마토가 전년동월비 208%인 494톤, 결구 양상추가 동 196%인 2,335톤, 멜론이 동 169%인 1,873톤, 파프리카가 동 126%인 2,106톤, 셀러리가 동 115%인 694톤, 파가 동 105%인 4,601톤, 결구 양배추가 동 102%인 3,778톤, 우영이 동 102%인 4,128톤으로 나타남
- 결구 양상추는, 주산지인 시즈오카현산 및 효고현산이 저온 등의 영향에 의해 사이즈가 작은 경향으로, 적은 입하량을 보여 수입량이 전년을 큰 폭으로 상회함. 수입량의 내역은, 제1위는 타이완 1,768톤, 제2위는 미국 525톤, 제3위는 중국의 43톤으로 나타남
- 멜론은 연료비상승과 저온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제품 부족감이 보여 멕시코로부터 수입량이 전년을 크게 웃돌았다. 수입량의 내역은, 제1위는 멕시코 1,854톤, 제2위는 오만의15톤, 제3위는 한국 4톤이었음
- 수입량이 감소한 주 품목에서는, 아스파라거스가 동 48%인 695톤, 호박이 동 66%인 10,307톤, 양파가 동 69%인 20,114톤, 생강이 동 81%인 1,491톤, 당근 및 순무가 동 81%인 4,358톤, 마늘이 동 92%인 1,557톤, 브로콜리가 동 98%인 3,323톤으로 나타남
- 양파는, 일본 자국산이 유통한 출하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산이 기후 불순으로 수확량이 감소했던 것에 가세해 생산 코스트의 상승과 엔화하락 등의 영향에 의해, 단가가 전년대비 226%로 상승하여 수입량이 전년을 크게 밀돌았다. 수입량의 내역은, 제1위는 중국 16,857톤, 제2위는 미국 3,078톤, 제3위는 태국 135톤으로 나타남
- 호박은, 뉴질랜드산이 한발이기 때문에 출하가 늦어져 수입량이 전년을 크게 밀돌았다. 수입량의 내역은, 제1위는 멕시코 10,095톤, 제2위는 뉴질랜드의 212톤으로 나타남

□ 계육조제품

- 전체 계육조제품은 전년대비 6.3% 증가, 한국산 삼계탕은 전년대비 약 33% 감소한 80백만 엔으로 나타남

□ 쿠키 비스킷

- 전체 쿠키,비스킷 등 과자류는 전년대비 14.7% 증가, 한국산은 전년대비 35.5% 증가한 103백만 엔으로 나타남

□ 알콜음료

- 전체 알콜음료는 전년대비 15.4% 증가, 한국산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1,729백만 엔으로 나타남

□ 맥주

- 일본전체 맥주수입액은 전년대비 16.9% 증가, 한국산 맥주는 136% 대폭증가한 59백만 엔으로 나타남

<품목 수입통계(누계기준)>

(단위:백만엔,%)

품목	2012년 한국수입	2012년 1~1월	2013년 1~1월	전년대비 (%)	1위		2위		3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농식품전체	191,159	659,045	682,790	3.6	미국	125,881	중국	98,851	캐나다	44,455
멜론(신선)	240	121	200	65.0	멕시코	197	오만	2	한국	2
밤	2,696	87	141	62.5	중국	132	한국	9	-	-
딸기(신선)	240	11	5	△57.2	한국	4	미국	0.3	-	-
야채(신선)	9,011	6,576	7,775	18.2	중국	3,314	멕시코	1,247	한국	799
토마토	738	81	204	151.7	미국	83	한국	69	뉴질랜드	27
결구양배추	187	104	147	42.4	중국	137	타이완	6	한국	5
오이	1.5	-	0.3	-	한국	0.3	-	-	-	-
가지	21	-	0.2	-	한국	0.2	-	-	-	-
기타버섯	106	11	18	59.2	한국	11	중국	3	프랑스	3
고추속·피망속	7,586	960	1,196	24.6	한국	711	뉴질랜드	480	오만	4
파프리카	7,235	917	1,155	26.0	한국	670	뉴질랜드	480	오만	4
계육조제품	885	14,244	15,141	6.3	태국	7,571	중국	7,387	한국	80
추잉껌	54	9	6	△33.4	중국	2	태국	1	한국	1
쿠키,비스킷	852	1,333	1,529	14.7	중국	593	미국	250	한국	103
코코아조제품	328	207	217	5.3	싱가폴	123	한국	64	말레이시아	21
인스턴트커피	1,000	594	815	37.2	브라질	193	한국	190	콜롬비아	124
알콜음료	27,058	13,110	15,130	15.4	프랑스	5,259	한국	1,729	미국	1,554
맥주	602	328	384	16.9	아일랜드	99	벨기에	62	한국	59
곤약	105	318	301	△5.5	중국	285	인도네시아	9	한국	7
원료인삼	169	128	172	34.7	중국	131	한국	34	타이완	6

자료원 : 일본농림수산성 통계정보

3. 타국산 경합품목 동향

□ 멜론

- 전체 멜론은 전년대비 65.1% 대폭 증가한 200백만 엔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산 멜론은 전년대비 50% 감소한 2백만 엔으로 나타남. 수입산 증가의 배경은 일본의 연료비 상승과 저온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제품 부족감이 보이고 있기 때문임

□ 밤

- 전체 밤 수입액은 62.5% 대폭 증가한 141백만 엔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산은 전년에 수입이 없었으나 금년에는 9백만엔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외국산 수입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주산지가 방사능오염으로 소비자가 해외 산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됨

□ 딸기

- 전체 딸기 수입액은 전년대비 57.2% 대폭 감소한 5백만 엔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산 딸기도 전년

대비 53.5% 감소한 4백만 엔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이어 미국이 소규모의 수입을 보이고 있음

□ 토마토

- 전체 토마토 수입액은 전년대비 약 152% 대폭 증가한 204백만 엔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산 토마토는 전년대비 45% 감소한 69백만 엔으로 나타남. 외국산이 늘어난 것은 일본의 작황이 좋지 못한 점과 소비자의 원전사고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양배추

- 전체 양배추 수입액은 전년대비 42.4% 증가한 147백만 엔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산 양배추는 전년대비 82% 감소한 5백만 엔으로 나타남. 수입 산이 늘어난 배경은 일본산이 저온 등의 영향에 의해 사이즈가 작은 경향으로, 입하량이 적기 때문임

□ 파프리카

- 전체 파프리카 수입액은 전년대비 약 26% 증가한 1,155백만 엔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산 파프리카 전년대비 30.7% 증가한 670백만 엔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뉴질랜드와 오만에서 수입이 많음

□ 인삼

- 전체 인삼원료 수입액은 전년대비 34.7% 증가한 172백만 엔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산이 131백만 엔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산 인삼원료는 전년대비 11.5% 감소한 34백만 엔으로 전체의 19.8%를 차지하고 있음

4. 동향 분석 [빵]

□ 시장규모

- 일본 자국 산의 빵 전체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99.9%인 1조3,810억엔으로 양판점이 식빵중심으로 상품전반에서 저가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12년도의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00.0%인 1조3,810억엔으로 전망되고 있음. 빵 대상범위 중에서 냉동, 냉장 빵을 제외한 상온유통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한 빵의 시장규모는 8,500억엔으로 추정되고 있음
- 근년은 소비가 감소세에 있었고 양판점의 베이커리 숍이나 CVS 등의 갓 구운 빵, 커피 숍 등 외식점에서 판매되는 빵에 수요가 이동되고 있는 것과 핵가족 사회에 의한 학교급식 빵의 감소 등으로 감소세로 추이되어 옴
- 07년, 08년은 원료가격 상승에 의한 가격인상이 실시되어 판매액이 증가로 전환했으나 판매량에서는 감소를 보임. 또한 경기악화로 인한 PB상품이 증가한 것도 시장축소의 한 요인으로 나타남. 10년은, 과자 빵·반찬 빵이 대기업의 개발, 판매주력에 의해 수요가 확대되어 빵 시장 전체로는 증가로 나타남.
 - * 과자 빵 : 표면에 단 맛을 붙이거나 감미가 있는 소재를 넣거나 하여 과자로서의 요소를 강화한 종류의 빵 (멜론 빵, 단팔빵, 잼빵, 크림빵 등)
 - * 반찬 빵 : 반찬 등을 소재로서 사용하여 가공한 빵(카레빵, 야키소바빵, 소세지빵 등)
- 11년은 지진재해로 인해 일부기업에서 공장이 재해를 입어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또한 원료조달이 곤란한 상황도 있었으나 다른 식품이 부족하여 재해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3월~5월경에 걸쳐 각사는 정평상품으로 좁힌 공급체제를 취해 동시기는 판매량, 판매액수 모두 2자릿수증가로 추이됨. 그 후, 5월 황금연휴 초에는 수요는 안정되었으나 여름철의 절전대책으로 그대로 먹을수 있는 과자 빵, 반찬 빵의 수요가 확대되었고 7월에 밀가루가격의 상승 등에서 다수기업이 가격개정을 실시하였으나 판매에 큰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전년보다 증가로 나타남

- 12년은 식빵에서 PB상품의 대두와 NB상품의 건투와 또한 반찬 빵은 상품의 다양화나 유효기한이 늘어난 상품의 등장 등으로 각각 증가세로 추이되고 있어 연중합계로는 증가를 유지할 전망이다

□ 유통동향

- 과자 빵, 반찬 빵은 시장의 6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11년은 지진 재해 이후의 수요증가에 의해 전년대비 102.7%로 증가함. 12년은 과자 빵은 전년의 수요증가의 반대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반찬 빵은 상품의 다양화나 유효기한을 연장한 상품의 등장 등으로 활성화 되고 증가가 전망되어 전체로는 거의 전년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 식빵은 시장의 약 25%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 각사가 간판브랜드 상품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음. 11년은 지진재해 직후 타 식품이 부족하여 수요가 확대하였으나 7월에 많은 메이커가 가격개정을 실시하였고 가을이후는 저 가격상품에 수요가 모여 연중으로는 약간 증가에 머무름. 12년은 대기업의 NB상품이 상승세로 이동되었고 또한 PB상품도 증가하고 있어 가격의 양극화가 진행되면서도 수요는 확대하고 있어 전년에 이어 계속하여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시판용이 시장 전체의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무용은 학교급식 빵이 핵가족화로 축소 경향에 있으나 호텔이나 레스토랑 전용의 식빵, 가정용 빵, 패스트푸드 체인인 햄버거점 등은 상승세로 이동되고 있음. 또한 가공용은 CVS를 중심으로 한 샌드위치 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점포수의 증가에 의해 판매액은 높아지고 있음
- 양판점이 시판용의 약 50% 이상의 구성비로 최대의 유통채널로 나타나고 있으며 CVS는 시판용의 약 30% 이상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음. 사용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과자 빵, 반찬 빵이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식빵도 PB상품의 증가에 의해 확대 경향에 있음
- 시판용은 대부분 PP 봉투로 시장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는 업무용의 종이봉투나 무포장의 경우가 있음

□ 수입동향

- 빵 수입은 다수 국가에서 다 분류로 수입되고 있어 공식적인 자료가 없어 파악이 어려우나 대일 한국산 빵 수출실적을 보면 12년에 약 2,000만불로 전년대비 54.1%로 대폭 증가를 보임

< 대일 한국 빵 수출동향 >

(단위: 톤, US 천불, %)

2011년		2012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3,078	12,391	4,830	19,099	56.9	54.1

□ 한국산 수입 증가사유

- 일본의 바이어들은 품질 면에서 특히 안전성에 대해 고수준으로 도약하고 있는 한국산에 대해 높은평가의 점수를 매기고 있으며 또한 동경박람회등 상담시에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향후 기대되고 있는 품목임. 현재는 서울식품공업이나 삼립식품 등 규모가 큰 업체가 전자렌지로 간단히 먹을수 있는 냉동빵의 수출이 주력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크로와산 등을 코스토코 등에 수출하고 있음.

□ 시사점

- 상품면에서는 일부상품을 제외하곤 명확한 차별화가 어렵고, 식빵을 시작으로 가격경쟁에 빠지는 상품 카테고리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에는 유력한 식품메이커, 외식기업과의 공동연구 상품을 개발, 발매하여 차별화를 도모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음
- 유통 점에서는 지금까지 식빵에서는 PB화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과자 빵이나 반찬 빵 등에서는 PB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NB가 중심의 전개를 보였으나 12년 9월에 이온이 톱바류에서 과자빵을 발매함으로써 향후는 과자 빵도 PB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이로 인해 양판점에서도 PB상품의 판매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지진재해 이후 소비자의 저가격 지향이 높아짐에 따라 PB상품이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NB상품도 저가격 상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이 때문에, 향후는 판매량은 감소하지 않아도 판매액은 신장율이 둔화하여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각사의 이익도 감소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도태되는 곳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